신심과 정성으로 聖寶 文化 창조
불상·탱화·범종 전시관
전화문의 : (02)735-1045 / 735-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023-4000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1월 1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중아함경〉

법회 안내

불광사 (02)413-6060

20회 수계법회 11.20. 10시30분
호법방생법회 매월 첫주 수
구도정진법회 매월 셋째 토
유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청년부 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어린이·중고등법회 매주 일

구룡사 (02)575-7766

불교대학 매주 화·수 오후1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21일 정진기도 11.3~11.23

무진법장사 (02)932-2333

일요합동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중고생법회 매주일 오전9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거사회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초하루법회 오전10시30분

관음사 (02)582-8609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1시30분

동국대 정각원 (02)260-3016

도문스님초청법회 11. 15. 오후 4 시(주제 : 참선수행)

강동포교원 (02)482-7244

동안거 백일기도 11. 27~2. 17
초하루법회 매월 초(음)
직장인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능인선원 (02)554-8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대학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일반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진해 정암사 (0553)43-6255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1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개혁 바톤 잇기' 분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21일···후보등록 마쳐

중앙종회의원 81명 선출, 80%가 초선

11대 종회 16일 개원

조계종 개혁회의는 개혁 바톤을 차기 집행부에 넘겨주기 위한 개혁 막바지 초 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제11대 중앙종회의원 48명을 각 교구별로 선출하고 직능별·비구니 종회의원선출을 완료한 개혁회의는 11일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종회 원구성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14일) △개원종회(16일) △총무원장 선출(21일) △원로회의 인준(23일) 등의 일정만을 남겨두었다.

개혁 막바지 일정의 최대 이슈는 총무원장 선거.

예측된 대로 사형사제 간인 월주스님(59, 금산사 회주)과 월탄스님(57, 전 법주사 주지)의 숙명적 대 결전이 벌어지게 됐다.

월주스님은 지난 9일 오전 9시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에 1번으로 등록,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완성, 대사면조치 등 향후 종책을 밝혔다.

월탄스님도 바로 뒤이어 선관위에 등록했다. 월탄스님은 등록이 끝난 직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행가풍확립 종단운영 민주화 등의 종책을 발표했다.

월주스님은 지난 54년 법주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문사 금산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80년 4월 총무원장에 선출됐으나 10.27법난으로 물러났다. 현재 경실련 불교인권위 광불협 등 10여개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월탄스님은 지난 55년 화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조계사 법주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승가총동문회장과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지난 7일 조계종 최초로 재적승에 의한 직접 비밀투표로 실시된 제11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총 유권자 2천8백8명의 비구스님중 1천1백15명이 투표 39.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48명의 새 종회의원을 탄생시켰다 (해인사 제외). 또한 8일 열린 직능 종회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율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비구니 등 11개 부문 간선의원을 확정했다. 〈명단 15면〉

이번에 선출된 종회의원들은 80% 이상이 초선이고 연령별로 30·4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개혁적 인물이 대거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능 선출의원중에는 개혁 대상이던 인물이 일부 끼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혁회의 마무리 작업에서의 험집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개원종회인 제 114회 중앙종회가 열린다. 이날 새 종회의장·부의장도 선출된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총무원장 선거가 끝나면 개혁회의는 자체 해산 법회를 갖고 오는 28일 새 종단집행부에 바톤을 넘기게 된다.

개혁회의 본 회의로는 마지막 열린 제12차 개혁회의에서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예산회계법 △선원법이 새로 제정되고 △종무원법 △포교법 △종립학교 관리법 △계단법 △호계원법 △신도법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건이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됐다.

비구니 종회의원 '직선'

조계종 선거법 일부개정···차기 선거부터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요구가 받아들여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일부가 개정, 비구니스님들의 직선으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조계종 제12차 개혁회의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18절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방법을 규정한 제 31조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인은 비구니계의 추천을 받아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를 △①비구니 중앙종회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②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교구별로 비구니 스님들의 직접선거로 실시토록 개정, 신설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비구니 스님들의 분리 간선 선거권이 분리 직선 선거로 바뀌어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이 다소나마 해소됐다.

목어

개혁의 뚜렷한 흔적으로 조계종의 교구본사 주지 진산식이 줄을 잇고 있다.

〈최수백장청규〉에 의하면 '당시대에는 진산식을 행할 때 신임주지는 바랑을 지고 산문에 이르러 분향한 후 법어를 한다'고 되어있다. 신임주지스님이 사원에 처음 들어와 업무를 계승하는 진산(陞山)은 본래 개당(開堂)에서 변형됐으며, 주로 선종에서 행해졌다고 전한다.

개당은 신임주지가 법당을 열고 공식적인 설법을 시작하는 것인데 남송시대 이후 부임행사의 일부로 행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때 왕명에 의해 개당의식을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조에 와서는 신임주지스님 취임때 진산식을 갖고 산문 인근의 주민을 초청하여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나눠 먹으며 법석을 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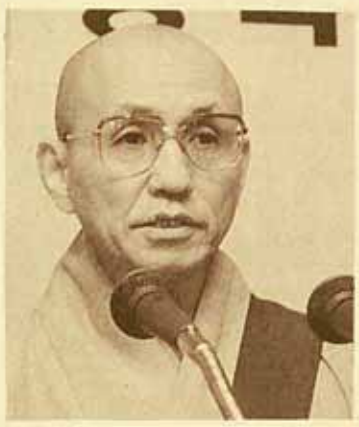
큰 절 진산식

요즘 진산식에는 큰스님들과 각계인사 그리고 신도들이 두루 참석하여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대형 화환과 꽃바구니가 즐비하고 음식이 풍성하다. 더없이 좋은 잔치날이다. 이런날 이름있는 하객들이 멀리서 방문하는 것은 보기좋은 풍경이다. 그러나 주지스님이 새로 오시는 날 빠져서는 안될 하객이 있다. 지역 주민들이다.

사람들은 세칭 큰절 주지스님을 '지역 사령관'이라고 한다. 지역의 리더로서 이웃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동네방네'일을 다 잘 아는 정신적 지주 또는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산식 마당에 초대받아야 할 손님이 누구인가는 자명해진다. 절 주변의 주민들과 노인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상차림과 행사가 마련된다면 더없이 보기 흐뭇한 진산식이 될 것 같다.

거기다 알기쉬운 불서나 절을 알리는 안내책을 법공양한다면 새 주지스님 오신 날을 기리는 진산식의 노래가 더욱 선명하게 울려퍼질 것이다.

총무원장 후보 기자회견 1문1답



월주스님

"개혁완성·종단화합 불교관계악법 개정"

– 출마동기는

"많은 종도들에게서 종단의 화합과 개혁 성취 및 개혁의 완성을 위해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종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종단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화합의 중도 온건 개혁종책을 펴겠으며, 둘째 개혁회의에서 제정한 새 제도를 시행·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겠다. 또한 교단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불교관계 악법들을 개정하도록 하며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확대, 사회 구제와 제도에 역점을 두겠다."

– 종책 내용중 대사면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개혁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이들도 개전의 정이 보이는 사람은 화합차원에서 대사면조치를 위해 종단 발전에 참여토록 하겠다."

– 개혁회의 7개월을 평가한다면

"전임자의 3일 자지, 종회의원 결직금지 등은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개혁의지를 관철시켜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고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점 역시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경험 미숙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도 간혹 눈에 띈다."

– '경불련' 등 10여개 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불교의 대 정부관계 개선 방안은

"80년 4월 총무원장이 된 후 첫 일성이 종단을 자주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이었고 자주화에 대한 시안까지 만들어 정부에 보냈으나 끝을 보지 못했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속에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자율화를 지켜가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들이 깨어나 스스로 자주화를 확립해 가야 하는 것이다." 〈경〉

월탄스님

"정교분리·포교혁신 승가복지제도 확립"

– 27대에 이어 두번째 출마한 뜻은

"개혁불사의 마무리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이 시대의 불교는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27대 때 부족했던 경험과 지혜를 보완했다."

– 개혁불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모든 종도들의 뜻인 총무원장 1인의 전횡과 독단을 막았다. 또한 불교가 이제까지 어용이란 말을 들었으나 불교의 주체성 자주성을 이루는 전기가 됐다. 그러나 짧은 기간 서둘다보니 종헌종법에 약간 무리한 부분도 있었다."

– 새 종헌종법의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든다면

"기구가 너무 많이 비대해졌다. 민주화 입장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종단을 일사분란하게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불교에서는 힘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힘이 분산되어 아쉽게 생각한다."

– 펼치고자 하는 중요 종책은

"승가의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종립선원 제도화, 종단운영의 자주화를 위해 정교분리·교구본사 활성화, 대중불교를 통한 포교의 전문화를 위해 불교 텔리비전·불교방송망 확충, 불교복지를 위해 전 승려의 승무비 지급과 의료보험을 실시하겠다."

– 승무비와 의료보험 실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불교의 복지제도는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특히 승가의 복지제도가 열악하여 노후나 생계 의료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안정적인 수행과 포교에 전력할 수 있도록 승무비 지급과 의료보험을 제도화 하겠다." 〈속〉

수요인터뷰 미당 서정주 시인 ···7면

함께 오늘의 우리를 생각합니다.
2. 도산 안창호를 찾아서

島山 安昌浩(1878~1938)

묻노니
오늘 대한의 주인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

"대한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외다.
그러나 오늘 대한사회에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
주변을 둘러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올바른 나라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일깨워 온 민족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그는 이렇듯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장엄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 다시한번 도산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땅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선경은 서로 듣고 함께 나누는 활기찬 사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남기신 선인들의 소중한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